



Quan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자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태석 taeseoklee@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10월 12일 | Global Asset Research

Quant Comment

국내외 주간 이익 동향 체크

글로벌 이익 동향 및 실적추정치 상, 하향 종목

미국 IT 및 에너지 실적 우상향 지속, 다만 그 속도는 소폭 둔화

에너지와 기술하드웨어, 반도체가 꾸준한 이익 상향의 핵심 축을 유지. 다만 상향 속도는 일시적으로 둔화. 상호미디어는 Meta, 금속·광물은 구리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모멘텀이 확대됐으며 바이오테크와 전자부품도 Amphenol, Delta Electronics, Corning 등을 중심으로 상향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종목에 실적 상향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 Nvidia의 1주 EPS 추정치는 1.00% 상향됐으며, 미국 전체 이익 상향에 대한 기여도는 23.4%를 기록. 해당 기여도는 20.1%에서 18.4%로 낮아졌다가 이번 주 23.4%로 재확대

삼성전자: 10/7 장 시작 전, 3분기 잠정실적 발표, 리비전 +2.06%

3분기 영업이익은 107.4조원으로 전년 대비 782% 증가했고 매출은 195조원을 기록. 영업이익은 사전 언론 컨센서스 범위인 107~114조원의 하단에 해당하지만 집계 기준에 따라 약 105조원과 비교하면 소폭 상회. 매출은 컨센서스인 약 200조원을 하회. 원화 강세와 대규모 성과급 충당금이 이익을 희석한 요인. 부문별 실적과 HBM4 공급계획은 10월 29일 확정실적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발표 당일 주가는 반락

Delta Air Lines: 10/9 장 시작 전, 실적 컨센서스 하회 및 연간 가이드언스 하향

조정 EPS는 1.72달러로 컨센서스 1.82달러를 5.5% 하회. 조정매출은 176억달러로 컨센서스 176.5억달러를 소폭 밑돌았지만 전년 대비 16% 증가. 조정 연료비는 41억달러로 전년 대비 62% 늘었고 7월 자체 전망보다 5억달러 초과. FY2026 EPS 가이드언스를 기존 6.50~7.50달러에서 5.10~5.60달러로 약 25% 하향했고 잉여현금흐름 전망도 30억~40억 달러에서 25억달러로 조정. 4분기 EPS 가이드언스는 1.15~1.65달러이며 제트유 가격은 갤런당 4.25달러를 가정. 프리미엄 매출은 18%, 화물은 29%, MRO는 28% 증가하며 비운임 수익이 전체 매출의 61%를 차지. 수요보다 연료비가 실적 하향의 핵심 요인

Shell: 10/7, 3분기 사전 업데이트, 리비전 +6.24%

3분기 정제마진 전망치는 배럴당 42달러로 2분기 24달러보다 75% 상승. 통합가스 생산 가이드언스는 74만~78만boe/d로 2분기 63.1만boe/d를 웃돌았으며, 9월 2일 완료된 ARC Resources 인수 효과가 반영되면서 기존 가이드언스 57만~63만boe/d에서 대폭 상향. LNG 액화량은 720만~760만톤으로 2분기 770만톤보다 감소할 전망. 다만 라인강 수위 저하에 따른 라인라트 정제소 영향으로 정제 가동률은 93~97%로 하락하고, 화학 마진도 2분기

톤당 270달러에서 208달러로 낮아질 전망. 3분기 확정실적은 10월 29일 발표 예정

Marvell Technology: 10/6 Investor Day, 중장기 성장 전망 상향, 리비전 +6.46%

FY2031 매출 목표를 700억~900억달러, 중간값 800억달러로 제시. FY2026 데이터센터 매출 61억달러를 기준으로 연평균 55~70% 성장하는 경로를 제시. 커스텀 실리콘 매출은 FY2029 120억달러 이상으로 기존 100억달러 이상에서 상향했고 FY2031에는 약 300억달러를 예상. TAM 전망도 기존 1,000억달러 미만에서 약 4,000억달러로 네 배 상향. FY2028 매출 전망은 180억달러에서 약 200억달러로 높였으며 FY2031 비GAAP EPS는 30달러 이상, 매출총이익률은 56~59%로 제시. 스케일업 광통신 매출은 현재 거의 없지만 내년에는 수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 복수의 증권사가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를 상향했으며 EPS 리비전은 1주 +6.46%, 1개월 +10.0%로 글로벌 유니버스 1주 상향을 1위를 기록

글로벌 이익 상향 업종은

정유·가스 (1주 +0.16%, 1개월 +0.49%, 1년 +3.3%, Shell +6.24, Eni +4.04, BP +3.68, ConocoPhillips +3.59, Suncor +3.54, Marathon Petroleum +3.05, TotalEnergies +2.71, EOG +2.06, Phillips 66 +1.84, Canadian Natural Resources +1.75, Chevron +0.87, ExxonMobil +0.35, Valero -0.30)

Shell의 사전 가이드를 통해 높은 정제마진이 실제 실적에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4주 연속 상향. 다만 Valero는 1개월 +20.5% 상승 이후 이번 주 -0.30%로 일부 되돌림

다각화금융서비스 (1주 +0.15%, 1개월 +0.12%, Charles Schwab +1.38, Robinhood +1.21)

금리가 고착 구간에서 수수료와 운용 기반 수익 모델이 재평가. Charles Schwab은 1개월 기준 +3.1%를 기록

기술하드웨어·스토리지 (1주 +0.09%, 1개월 +0.14%, 1년 +3.5%, Seagate +2.53, 삼성전자 +2.06, Hon Hai +0.67, Dell +0.30, Apple +0.25)

삼성전자 실적 확인과 eSSD·HDD 가격 강세가 추정치에 반영. Seagate는 3개월 기준 +51.1%를 기록

반도체 (1주 +0.08%, 1개월 +0.32%, 1년 +4.4%, Marvell +6.46, SK하이닉스 +2.78, AMD +1.92, TSMC +1.54, Tokyo Electron +1.05, Nvidia +1.00, ASML +1.00, MediaTek +1.00, Arista Networks +0.92, Broadcom +0.78, KLA +0.76, Lam Research +0.69, Micron +0.58, Advantest +0.58)

Marvell Investor Day에서 제시된 중장기 성장 전망과 메모리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반영. Micron은 1개월 기준 +13.7%를 기록

용기·포장 (1주 +0.06%, 1개월 +0.26%)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판매가격이 유지되면서 스프레드 개선이 3주 연속 지속. 커

버리지 내 해당 대형주는 없음

이 밖에 해운은 1주 +0.06%, 1개월 +0.36%, 3개월 +2.0%를 기록했고 상호미디어는 1주 +0.05%로 Meta가 +0.45%를 기록

하향 업종은

항공 (1주 -0.23%, 1개월 -0.51%)

3주 연속 하향 1위를 기록했으며 1개월 기준 하향 폭도 확대. Delta Air Lines가 연료비 62% 증가를 반영해 FY2026 EPS 가이드를 약 25% 낮추면서 업종 전체의 비용 가정이 하향. 프리미엄 매출은 18% 증가해 수요는 견조했으며 연료비가 실적 하향의 핵심 요인

건자재 (1주 -0.07%, 1개월 -0.14%)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37%까지 상승하면서 주택과 비주거 건설 착공 가정이 하향

무선통신 (1주 -0.06%, 1개월 -0.21%)

SpaceX의 주파수 인수로 가입자와 ARPU 가정이 재산정된 반면 통신 타워는 반대 방향

음식료 (1주 -0.04%, 1개월 -0.08%, PepsiCo -2.13)

판매량 둔화와 가격 전가의 한계가 이익 추정치를 압박. PepsiCo는 1개월 기준 -2.2%를 기록

화학 (1주 -0.04%, 1개월 +0.12%, Linde +0.14, Sherwin-Williams +0.02)

전주 +0.19%에서 하향으로 전환. Shell의 화학 마진이 2분기 톤당 270달러에서 3분기 208달러로 하락하면서 업종 방향을 확인. Linde와 Sherwin-Williams의 상향 폭도 둔화

글로벌 주요 실적 리비전 종목(EPS 1주 변화율 기준)은

Freeport-McMoRan은 1주 +5.05%, 1개월 +7.7%, 1년 +108.3%로 2주 연속 큰 폭의 상향을 기록. Glencore도 전주 -2.17%에서 이번 주 +3.26%로 반전하면서 금속·광물 업종을 +0.04%로 전환. 다만 북미 소재 섹터 전체는 -0.01%로 구리 관련 상향이 화학 하향에 상쇄된 구조

Gilead Sciences는 1주 +3.03%, 1개월 +12.6%, 3개월 +61.2%로 4주 연속 상향. Regeneron도 1주 +1.25%, 1개월 +3.4%를 기록하면서 바이오테크 업종은 +0.04%

Recruit Holdings는 1주 +1.93%, 3개월 +30.7%, 1년 +91.3%. Rolls-Royce +1.57%, Atlas Copco +1.43%와 함께 유럽과 일본 산업재의 개별 강세가 지속. 유럽 산업재와 일본 산업재는 각각 +0.03%

Intel은 1주 +1.42%, 3개월 +45.7%, 1년 +248.8%. 1개월 변화율은 +0.89%로 둔화됐지

만 주간 기준으로 재차 확대

Amphenol은 1주 +1.49%, 3개월 +20.4%, Corning은 +0.86%. AI 서버용 커넥터와 광부품 수요가 반영되면서 전자부품 업종은 1주 +0.04%, 1개월 +0.10%

MercadoLibre는 1주 +1.33%로 국가별 이익 변화율 1위를 기록한 브라질 +0.40%와 연결

하향 주요 종목은 Prologis -6.92%(1개월 -14.5%), SoftBank Group -4.76%(3개월 -45.8%), Boeing -3.16%(1개월 +5.5%), Spotify -1.23%, Hermès -0.79%, Ping An Insurance -0.71%

국내 증시 이익 동향, 실적추정치 상하향 종목, 수급

코스피 3Q26F OP는 267조원(1W -0.7%, 1M -2.9%, QoQ +17.1%). 2026E OP는 968조원(1W -1.3%, 1M -1.9%, YoY +223%). 3Q26F OP 상향 업종은 2차전지, 해운, 정유, 화장품, 조선, 전기장비. 하향 업종은 항공, 디스플레이, 증권, 게임, 자동차, 상호미디어

국내 대형주 리비전 특징주(3Q26F OP)는 삼성전기,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두산 상향. 현대차, NAVER, 한국전력, 포스코퓨처엠, LG, 미래에셋증권, LG이노텍 하향

3Q26F OP 상향 주요 종목은 삼성SDI, SK이노베이션, 한미약품, 알테오젠, HMM, HD현대, LG에너지솔루션, S-Oil, 삼성전기, 두산, 한화시스템, 기업은행, SK바이오팜, 심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DB손해보험, 삼성바이오로직스, LS ELECTRIC, 포스코인터내셔널, HD현대마린솔루션, 하이브, 대한전선, 현대건설, KT&G, UGI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유한양행, 에이피알, 한화솔루션, HD현대중공업, KB금융, SK, 이수페타시스, 셀트리온, 두산에너지빌리티, 한미반도체, GS, 코웨이, 이오테크닉스, LG유플러스, DB하이텍, 대덕전자, LG씨엔에스, LS, KT, 한화오션, 대우건설, 삼성화재, 삼양식품, HD현대일렉트릭, HD한국조선해양

외국인은 고배당주만 매수하고 나머지 업종에서는 매도 우위. 코스피 6.4조원, 코스닥 910억원 순매도. 순매수 상위 업종은 항공, 해운, 유통, 기술하드웨어, 2차전지. 순매도 상위 업종은 반도체, 가전, 방산, 전자재, 전기장비

연기금은 중소형주를 매수하고 고배당주를 매도. 코스피 3,000억원, 코스닥 350억원 순매도. 연기금 순매수 상위 업종은 에너지, 화학, 필수재, 가전, 2차전지. 연기금 순매도 상위 업종은 증권, 유통, 자동차, 조선, 건설

금주 주요 일정 (경제지표 / 실적발표)

10월 12일(월)

주요 일정: 미국 채권시장은 컬럼버스데이로 휴장하며 주식시장은 정상 개장 / 일본 증시는 스포츠의 날로 휴장

13일(화)

경제지표: 한국 10월 1~10월 수출(관세청, 오전 9:00)

실적발표: JPMorgan / Wells Fargo / Goldman Sachs / Citigroup(모두 장 시작 전) - 미국 3분기 어닝시즌 개막

14일(수)

경제지표: 미국 9월 CPI(오후 9:30) / 미국 9월 실질임금(오후 9:30) / 연준 베이지북(10월 27~28일 FOMC 2주 전)

실적발표: Bank of America / Morgan Stanley(장 시작 전) / ASML 3분기

15일(목)

경제지표: 미국 9월 PPI(오후 9: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오후 9:30)

실적발표: TSMC 3분기(오후 3:00 전후) / US Bancorp / Charles Schwab

16일(금)

경제지표: 미국 9월 수출입물가지수(오후 9:30)

주요 일정: 미국 월물 옵션 만기

다음 주 이후 주요 이벤트는 10월 20일 Netflix 3분기 실적, 10월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0월 27~28일 9월 25bp 인상 이후 첫 FOMC, 10월 29일 삼성전자 3분기 확정실적 및 콘퍼런스콜과 Shell 3분기 확정실적, 11월 11일 MSCI 11월 분기 리뷰 발표 및 12월 1일 리밸런싱 적용, 11월 14일 3분기 13F 제출 마감

Quant Comment

지난 주말 VIX는 1.6% 하락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24%로 5bp 하락. Term Premium은 92bp로 6.6% 하락했고 SOX는 3.8% 내리며 전반적인 시장 심리는 중립적

OpenAI 매출 전망을 둘러싼 보도 차이로 기술주 변동성이 확대. 10월 8일 FT가 OpenAI의 연환산 매출이 500억달러 수준으로 기존 보도보다 약 200억달러 낮다고 보도하면서 기술주가 급락. 다음 날 Bloomberg가 연말 연환산 매출을 700억달러로 전망하면서 Magnificent 7은 약 1% 반등. AI 수요 자체의 변화보다 매출 인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었다는 점이 중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4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금리 민감 자산의 실적 추

정치를 직접 훼손. Prologis는 1주 -6.92%, 1개월 -14.5%로 3주 연속 하향 1순위를 기록했고 Equinix도 -0.70%

한국 반도체의 소외 현상은 외국인 매매의 특성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 외국인은 통계적 평균회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주가와 수급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역발상 매수에 나설 가능성. 현재 주가 변동성은 낮아지고 있지만 자사주 매입 종료로 수급 여건이 달라진 만큼, 자사주 매입이 종료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의 전환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

중국과 미국 반도체 기업의 점유율 추격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지만, 이를 외국인 수급이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만으로는 패시브 비중이 높은 외국인 전체 수급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